

2019년 5월 23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로 하락 므누신 “아직 중국과 무역회담 계획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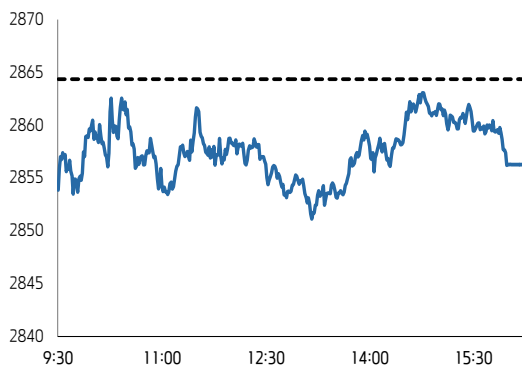
###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우려가 부각되며 반도체 및 산업재 섹터가 하락 주도. 더불어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와 국제유가의 하락 또한 부정적인 영향. 다만, FANG 기업들과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낙폭 제한. 한편,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으나 영향력은 제한(다우 -0.39%, 나스닥 -0.45%, S&P500 -0.28%, 러셀 2000 -0.88%)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아직은 중국과 무역회담 계획이 없다” 라고 언급. 지난 주 초반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단을 초청 했으나, 미국은 통신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하며 협상을 지연. 이런 가운데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협상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점은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를 높임. 한편, 므누신 장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 영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 다만, 므누신 장관은 “앞으로 30~45 일 안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 어떤 결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

한편, 미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 인내심 있는 정책 기조를 재 확인. 그런 가운데 낮은 인플레이션과 관련 대부분의 위원들은 파월 연준의장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주장 했던 ‘일시적’ 이라고 판단. 경제와 관련 한국과 멕시코는 실질 GDP 가 위축되고 있으나, 중국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유로존과 영국 등도 성장률이 반등되고 있다며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미-중 무역분쟁을 비판. 다만 연준은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금융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음.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었지만, 파월의장 기자회견 당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4.86	+0.18	홍콩항셱	27,705.94	+0.18
KOSDAQ	706.93	+0.42	영국	7,334.19	+0.07
DOW	25,776.61	-0.39	독일	12,168.74	+0.21
NASDAQ	7,750.84	-0.45	프랑스	5,378.98	-0.12
S&P 500	2,856.27	-0.28	스페인	9,232.20	-0.07
상하이종합	2,891.71	-0.49	그리스	731.49	-0.23
일본	21,283.37	+0.05	이탈리아	20,573.31	-0.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2%

퀄컴(-10.86%)은 미 법원이 과도한 특허료 등으로 반독점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리자 급락 했다. 애플(-2.05%)은 화웨이에 대한 규제로 중국내 불매 운동 가능성이 높아졌고, 골드만삭스는 이럴 경우 애플의 매출이 30% 급감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퀴보(-2.18%), 스카이웍(-1.72%), 브로드컴(-2.22%)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하락 했다. 더불어 GM(-4.26%)과 포드(-2.64%) 등 미국산 자동차들도 불매운동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하락했다.

한편, 무역분쟁 여파로 중국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와 미 원유재고 급증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EOG리소스(-2.84%), 아파체(-4.35%), 데본에너지(-5.82%) 등 세일오일 생산업체는 물론 슬룸베르거(-2.94%), 할리버트(-3.32%), 발레로에너지(-2.57%) 등 원유 및 천연가스 서비스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주택 개선 용품 업체 로이어(-11.85%)은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 했으며, 의류업체인 노드스트롬(-9.25%)도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반면, 타겟(+7.78%)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아나로그디바이스(+1.56%)도 양호한 실적발표로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82%	대형 가치주 ETF(IVE)	-0.62%
에너지섹터 ETF(OIH)	-3.47%	중형 가치주 ETF(IWS)	-0.53%
소매업체 ETF(XRT)	-1.86%	소형 가치주 ETF(IWN)	-1.06%
금융섹터 ETF(XLF)	-0.59%	대형 성장주 ETF(VUG)	-0.21%
기술섹터 ETF(XLK)	-0.52%	중형 성장주 ETF(IWP)	-0.3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6%	소형 성장주 ETF(IWO)	-0.83%
인터넷업체 ETF(FDN)	+0.35%	배당주 ETF(DVY)	-0.64%
리츠업체 ETF(XLRE)	+0.4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4%
주택건설업체 ETF(XHB)	-1.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1%
바이오섹터 ETF(IBB)	+0.32%	미국 국채 ETF(IEF)	+0.30%
헬스케어 ETF(XLV)	+0.57%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31%	물가연동채 ETF(TIP)	+0.04%
반도체 ETF(SMH)	-1.76%	Long/short ETF(BTAL)	+0.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6.10	-1.58%	-1.13%	-6.38%
소재	339.86	-0.66%	+0.20%	-5.36%
산업재	629.83	-0.82%	-0.17%	-4.77%
경기소비재	910.10	-0.90%	-0.84%	-4.51%
필수소비재	593.60	+0.55%	+0.58%	+1.48%
헬스케어	1,036.50	+0.63%	+2.02%	+2.75%
금융	447.70	-0.50%	+0.99%	-1.49%
IT	1,305.25	-0.57%	-0.97%	-5.68%
커뮤니케이션	164.44	+0.03%	+0.29%	-1.73%
유틸리티	300.07	+0.82%	+2.13%	+2.42%
부동산	225.51	+0.41%	-0.03%	+1.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20%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021 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일과 같은 267.20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9.6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로 하락했다. 특히 애플과 애플 부품주, 반도체 및 에너지, 자동차, 소매유통업체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이들 중 소매유통업체들의 경우 부진한 실적과 향후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부진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애플의 경우 중국내 불매운동이 본격화 된다면 전체 매출이 30%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 여파로 하락했으며 부품주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의 대미 천연가스 수입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제유가 및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이렇듯 미 증시는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담이 이어지며 주식시장 전체 보다는 개별 기업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종목장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190원을 하회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예상 하회

4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yoy +2.2%)를 하회한 전년 대비 2.1% 증가로 발표되었다. 전월 대비로는 0.6%상승에 그쳐 이또한 시장 예상치(mom +0.7%)를 하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재고 증가 여파로 2.7% 하락

국제유가는 중국이 미국산 천연가스 및 원유 등을 수입 제재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 했다. 더불어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140 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74 만 배럴 증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확대했다. 가솔린도 372 만 배럴, 정제유도 77 만 배럴 증가 했다.

달러화는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와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으로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유로화는 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 정치적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중 하나였다. 한편,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낮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금은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7%, 철근도 0.1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1.42	-2.71	-1.32	Dollar Index	98.084	+0.02	+0.53
브렌트유	70.99	-1.65	-1.09	EUR/USD	1.1153	-0.07	-0.43
금	1,274.20	+0.08	-1.82	USD/JPY	110.33	-0.15	+0.67
은	14.449	+0.27	-2.45	GBP/USD	1.2663	-0.34	-1.42
알루미늄	1,779.00	-0.95	-4.10	USD/CHF	1.0096	-0.15	+0.09
전기동	5,928.00	-1.13	-2.58	AUD/USD	0.6882	-0.01	-0.66
아연	2,542.00	-1.36	-3.20	USD/CAD	1.3432	+0.19	-0.04
옥수수	394.50	+0.06	+6.77	USD/BRL	4.0419	+0.07	+1.00
밀	472.75	-1.25	+5.35	USD/CNH	6.9353	+0.02	+0.45
대두	828.50	+0.79	-0.84	USD/KRW	1192.80	-0.10	+0.35
커피	91.75	-1.24	+0.49	USD/KRW NDF1M	1189.65	-0.18	+0.3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382	-4.44	+0.88	스페인	0.865	-0.60	-8.70
한국	1.825	-1.00	-3.50	포르투갈	1.022	-0.70	-9.90
일본	-0.056	-1.10	-0.50	그리스	3.399	+2.50	-14.50
독일	-0.086	-2.30	+1.20	이탈리아	2.631	-1.10	-11.50